

진흥회 활동

96년 전자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96년 전자산업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11일(목)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350여명의 전자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본회 구자학 회장,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 정해주 특허청장, 김상영 전자사문사 사장, 대우전자 배순훈회장, 김영수 전자조합 이사장 등 정부 및 업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본회 구자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우리 전자산업이 대내외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30%가 넘는 고도성장을 통해 수출 440억불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하고 정부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50만 전자공업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했다.

또한 “올해는 치열한 무한경쟁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난날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지하

던 의식과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술개발에 진력하는 한편 경영혁신과 노사화합으로 생산성을 드높여 가격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 제품생산에 전력 투구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전자산업인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경계의 산업발전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제92차 이사회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22일(금) 무역센터에서 9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요율 개선방안, 무선이동전화 시스템의 아날로그방식 도입 반대,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도입 대응, 정부조달용 PC 내구연수 조정, 행정전산망용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 개정 등 대정부 건의 활동을 보고했다.

한편 본회 구자학 회장은 95년 전자산업 발전 성과에 대해 우리 기술개발 노력이 적중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전자공업인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다.

특히 금년은 본회 전산화 및 정보통신망 구축을 활발히 추진중이며 정보통신부로부터 초고속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총괄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어 96년부터는 이 분야에 새로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최근 전자산업수급동향 조사 및 정보서비스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보고하고 96년 주요 신규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본회, 부품 공용화사업 확대

본회는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냉장고 세탁기 등 5대 가전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한 부품공용화 사업을 금년에는 수출전략품과 미래수출유망품목,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한 품목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가전3사와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본회 가전3사의 부품공용화사업을 원가절감과 수입대체차원의 소극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수출증대와 소비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총체적 사업으로 전개키로 하고 대상품목과 일정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본회는 관련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금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부품공용화사업을 계기로 부품산업을 고도화, 일본처럼 부품을 통한 수출의 고부가가치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수출 주품목인 5대 가전외에 △수출전략품목 △미래수출 유망품목 등으로 부품공용화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 이사업의 산업화뿐 아니라 서비스 측면을 고려한 사업병행도 절실하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에 주안을 둔 부품을 업계가 공동개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가전3사의 5대가전 52개 부품에 대한 부품공용화 사업은 전자업계의 총체적 사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산업 協, 중국에 의료기기 수출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회장 한원국)가 1,500만달러 규모의 의료기기를 중국에 수출한다.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 중외메디칼 본사에서 한원국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장과 이광선 중외메디칼 사장, 최승주 중국 훈춘시 위생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이용해 의료기기 등을 공급키로 합의하고 조인서를 교환했다.

한·중 양측은 이날 조인식을 통해 초음파 영상진단기·X선진단기·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 1,000만달러, 병원건설 500만달러 등 총 1,500백만달러 규모의 EDCF사업을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금년 상반기 중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 회원사인 중외메디칼사를 대중국 EDCF 추진 창구사로 선정, 조인서에 명기하고 중국 EDCF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계획이다. 이번 대중국 EDCF 차관사업의 조건은 7년거치 15년 상환이며 이율은 연 2.5~3%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원국 협의회 회장은 「1,000만달러 규모의 스리랑카 EDCF에 이어 이번 중국 EDCF사업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EDCF를 활용한 전자의료기기 수출이 대폭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 국산 첨단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의료기기의 수출은 지난해 5,000천만달러에서 올해는 약 7,700만~8,000만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은 94년 4억달러에서 95년도 약 5억달러로 늘어 전자의료기기의 무역역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 초고속망 기술개발 주관기관 선정

본회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5년 사업 완료율 목표에 추진되는 교환 시스템 및 전송시스템, 접속장치 등을 본회가 주관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앞서 초고속기획단은 사업 총괄 주관기관 선정에 앞서 가진 평가회에서 사업목적 적합성,

운영경험, 전담인력 확보 등에 있어 본회가 타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 총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는 산업화 지원방안의 연구수행과 정책건의, 사업협약체결 및 연구개발 요령 작성, 과제 공모 및 제안서 설명회를 갖게 되고 과제협약 및 관리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본회는 교환시스템 등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케 된다. 한편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개발 사업에는 오는 2015년 까지 총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금년 집행될 연구개발비는 64억 규모다.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주)세라텍



대표이사 : 오 세 중
주 소 : 경기 군포시 송정동 694-29
전화번호 : 0343)58-1010
F A X : 0343)58-1015
설립일자 : 1989. 9. 8
자 본 금 : 25억원
종업원수 : 165명
주생산품목 : Chip Ferrite Beads, Multilayer Chip Inductors 등

인텍크산업(주)



대표이사 : 안 민 구
주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전화번호 : 02)577-3611
F A X : 02)577-4369
설립일자 : 1988. 10. 7
자 본 금 : 15억원
종업원수 : 126명
주생산품목 : 선불카드용 단말기, 교통스마트카드 등